

전남 교육불평등 가장 심하다

2000년 지니계수 0.329, 광역 지자체 중 최고

남녀 교육 차별도 여전 … 정부서 격차 줄여야

전남의 교육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통계청 통계연보를 토대로 교육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교육 지니계수'를 산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2000년 교육 지니계수는 0.329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서울이 0.178로 계수가 가장 낮았고,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남 합천(0.460)과 서울 서초구(0.140)가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1970년 0.414에서 2000년 0.225로 교육 불평등 정도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교육 연한 역시 5.71년(1970년)에서 10.56년(2000년)으로 배

▲ 교육 지니계수=개인이 평생 얼마동안 교육을 받는지를 토대로 계산한 상관계수로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음을 뜻한다.

가까이 많아졌다.

그러나 남녀간 구분에 따른 지수는 남자 0.185 여자 0.259로 여전히 성별에서도 교육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 연한은 남녀가 각각 11.44년, 9.74년이었다.

박남기 교수는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간 차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 30년간 교육 지니계수

(괄호는 평균 교육연한)

구분	1970년	2000년
전체	0.414(5.71)	0.225(10.56)
성별	남 0.362(6.82) 여 0.449(4.71)	남 0.185(11.44) 여 0.259(9.74)
광역 단체	서울 0.288(8.21)	서울 0.178(11.70)
최고	0.486(4.58)	0.329(8.40)
기초 단체	서울 중구 0.270(8.59)	서울 서초 0.140(14.61)
최고	경남 산청 0.559(3.55)	경남 합천 0.460(6.18)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일제 강제노역 피해 나주 양금덕·이유녀 할머니



일본으로 강제노역을 떠났던 양금덕(원 오른쪽), 이유녀(원 왼쪽) 할머니가 1944년 6월 당시 일본 나고야 앞에서 전라남도 나주초등학교 출신들이 부르던 말들과 찍은 사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제공

63년만에 빛나는 초등 졸업장



〈양금덕 할머니〉

〈이유녀 할머니〉

초등학생 시절 일본으로 끌려가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63년만에 감격의 졸업장을 받게 됐다.

28일 나주초등학교(교장 김윤섭)는 "오는 5월 20일에 열릴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79·광주시 서구 양동), 이유녀(78·광주시 동구 학동) 할머니에 대해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44년 5월 당시

일본가면 공부하고 돈 번다는 말에 속아

항공기 제작사서 하루 10시간 강제 노동

나주초교 6학년에 재학 중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갔다.

일본에 도착한 이들은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제작회사에 배치를 받아 해방을 맞던 1945년 8월 15일까지 하루 10시간 이상의 혹독한 강제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당시 두 할머니와 함께 현해탄을 건너 사람은 동료 학생 10명과 졸업한 선배 14명 등 24명. 이들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현지에서 지진으로 숨진 한 사람을 포함, 양금덕, 이유녀 할머니 등 모두 3명 뿐이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일본으로 끌려간 두 할머니는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1945년 10월 21일 귀국했다.

'일본에 갔다왔다'는 이유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를 받아 혼사가 몇 번이나 미뤄졌고 사람들의 손 가락질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멀리 떨어진 화순 남자와 결혼했지만 결국 5년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다.

두 할머니의 당시 생활기록부에는 '정신대 동원 중'이라는 글귀가 남아있어 강제동원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두 할머니는 현재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와 일본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3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이제야 졸업생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로워 눈물이 났다"

며 "죽기 전에 졸업장을 만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막상 졸업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노대통령·권양숙 여사 무궁화 대훈장 받는다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상훈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국정홍보처가 국무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 대훈장은 과거 새 대통령 당선인이 나올 경우 정권을 이양하는 정부의 국무회의의 결례에 의해 새 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해 신임 대통령에게 수여되어 온

것이 관례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시절에 '신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상징하는 무궁화 대훈장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나 취임식 때보다는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어 전용교사 자격제 도입 추진

인수위, 2010년부터

어교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현행 임용교사를 통한 영어교사 채용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국내외 영어교육과정(TESOL 등) 이수자와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술면접을 거쳐 영어전용교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것으로 전해졌다.

영어전용교사로 선발되면 연수를 거친 뒤 계약제 정규교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로스쿨 정원 배정비율 철회하라”

광주시의회 성명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 배정 계획과 관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에 대한 광주시의원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교育부가 지방 대학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발표한 로스쿨 정원 배정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서울 권역과 나머지 지방 4개 권역의 정원 비율을 52대 48%에서 5%

가량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원 배정 비율을 57대 43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라며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철학을 뒤흔들고 지방대의 설 자리를 없애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를 제안한 조호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배정은 수도권과 지방 권역의 균형과 함께 동서간의 균형과 인구수를 고려해 영호남의 비율이 최소한 1.5 대 1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자기기자 dok2000@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최고경영자과정 호남 5기

어떤 사업을 마느냐 보다, CEO가 누구인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